

「아시아 공동체: 유교사상과 宋明理學」

글쓴이: 黃美惠

중국문화대학 설립자 장치원(張其昀) 박사는 『공학금의(孔學今義)』에서 “중화 5000 년 역사에 있어서, 공자학설(孔子學說) 지나간 것을 이어받아 미래의 것을 창조해 나가는 중추이며, 공자학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중국 문화의 유래 및 발전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본교 학생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 제 12 회 One Asia 국제 강좌가 개최되었으며, 쉬싱칭(徐興慶) 총장님이 직접 본교 중문과 학과장 겸 중문과 대학원 원장님이신 왕진옌(王俊彦)교수를 특별 초빙하여 '아시아 공동체:유교사상과 宋明理學(亞洲共同體 : 儒家思想與宋明理學)'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 하셨습니다. 왕소장은 본교 중문과 박사로서, 양한(兩漢), 수당(隋唐), 원명(元明) 학술 사상사에 대한 깊고 풍부한 학지(學知)를 갖추고 계시며, 본 강좌에서 공자가 '인(仁)' 을 인식하게 된 역사적 원인, 공자의 교육·정치·법률·역사·종교 사상, 공자사상의 6 대 공헌, 공자의 인(仁)·의(義)·예(禮), 공자 학설의 4 대강령 등에 초점을 맞춰 공자학의 내용 및 발전에 대해 자세한 설명하셨습니다. 왕소장님 강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문화는 유교, 불교, 도교를 융합하여 형성된 문화이며, 특히 유교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周)나라 사람은 은(殷商)나라의 귀신숭배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요시하였고, 가족 혈연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주공(周公)은 예(禮)를 제정하고 악(樂)을 만들었으며 혈연관계인 '친친지살(親親之殺)'의 부자장유(父子長幼)의 질서를 정치관계인 '존존지등(尊尊之等)'의 군신존비(君臣尊卑)의 질서로 확대하여 주(周)나라의 예악(禮樂)제도를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周)의 황실을 동쪽으로 천도한 후에 군신(君臣), 부자(父子), 장유(長幼), 존비(尊卑)의 질서를 유지하는 예악(禮樂)제도가 나날이 쇠퇴하여, 신하가 주군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예악(禮樂)이 무너져가는 혼란 상태를 직접 목격하고, 예악(禮樂)이 단지 허례허식만 있는 잘못됨을 성찰하고, '인(仁)', '의(義)', '예(禮)'의 도덕적 내용과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나라의 예법(周文)의 새로운 내용 및 새로운 형식으로서, 중국문화의 새로운 도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 유학(儒學)중의 교육철학, 정치철학, 법률철학, 역사철학, 예술정신, 종교철학등에 큰 영향 및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도덕가치와 도덕적 인격 양성을 핵심으로, 그리고 도덕적 인격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며 천하를 평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 유학(儒學)사상의 큰 틀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맹자(孟子)는 '성선론(性善論)'을 제창하였는데, 그 내용은 '진심(盡心), 지성(知

性), 지천(知天)'이며, 공자(孔子) '인(仁)', '의(義)', '예(禮)'의 도덕적 근거를 인성론(人性論)에 내면화하고, 성선론(性善論)의 형이상적 근거를 도덕천(道德天)의 측면으로 찾아 유학(儒學)의 도덕이론을 완비하였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도덕은 본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율적 도덕임을 강조하고, 현실 상황에 대응하는 도덕의 유연성을 중시하였습니다. 순자(荀子)는 자연적 감성의 측면에서 도덕을 설명하였으며, 타율적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을 통한 도덕규범의 학습을 제창하였고, 새로운 윤리 도덕규범을 세워 전국시대의 혼란에 대응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순자(荀子)는 '화성기위(化性起偽)'를 주장하여, 이성적인 인식을 통해 도덕을 인식하여 기질(氣質)의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인간의 자연적 감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윤리 도덕규범 질서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였고, '예의지통(禮義之統)'을 사회도덕규범의 법기로 세움으로써 유학(儒學)이 타율적 도덕을 다루는 사회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漢)나라의 동중서(董仲舒)는 한(漢) 제국의 통일을 목격하며, 선진유학(先秦儒學)의 도덕가치의 핵심을 계승하고,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기(氣)에 대한 이론을 흡수하여, 천인상응(天人相應) 사상과 결합시켜, '양존음비(陽尊陰卑)'를 제창하여 군주의 권력을 높이 받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주 권력의 견제를 위해 재이지설(災異之說)을 주장합니다. 한무제(漢武帝)가 동중서(董仲舒)의 학설을 받아들여 '독존유술(獨尊儒術), 파출백가(罷黜百家)'를 했습니다. 동중서(董仲舒)는

새롭게 유교사상을 해석하여, 정치권력의 지지를 통하여, 한(漢)나라의 유학(儒學)의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위(魏),진(晉),수(隋),당(唐)은 불교, 도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국가의 법령과 제도 및 사회질서는 여전히 유교적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송명이학(宋明理學)은 도가(道家)의 천도론(天道論)과 불교의 심성론(心性論)의 도전을 대응하였습니다. 장재(張載)는 '태허즉기(太虛即氣)'를 언급하였으며, 도가(道家)의 '기론(氣論)' 사상을 흡수, 유교사상에서의 '처도'(天道)를 '生生不息(생생불식)', '無性而實有(무성이실유)'라고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불교 심성론(心性論)의 정미(精微)를 흡수, '천지지성(天地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초월성과 한계성을 언급함으로써 송명이학(宋明理學)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주희(朱熹)는 정이(程頤)의 설을 계승하여, '이기이분(理氣二分)', '심성정삼분(心性情三分)'을 주장하였으며, 마음으로 만사와 만물의 '이(理)'를 인지해야만 하거늘의 이치(天理)를 이해하고 성리(性理)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을 통하여 도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순자(荀子)가 주장한 지식을 통한 타율적 도덕을 확립한다는 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왕양명(王陽明)의 '심즉리(心即理)'의 주장은 맹자(孟子)와 비슷한 데, 도덕이 내재된 양지(良知)에서 우러나온다는 자율성을 강조하며, 또한 이러한 도덕적 양지(良知)의 활동력과 감지력(活潑感通)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도덕규범의 경직성을 깬으로써 선진유학(先秦 儒學)에서 언급하는 도덕의 내재적 본질과 활력을 되찾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명 말청초(明末清初) 학자인 왕부지(王夫之)는 장재(張載)의 기론(氣論)사상을 계승하여, '천지지기(天地之氣)'를 공자(孔子), 맹자(孟子), 동중서(董仲舒), 주희(朱熹), 왕양명(王陽明)의 설과 하나로 묶고, 맹자(孟子)의 '성선론(性善論)'과 순자(荀子)의 '성악론(性惡論)'을 결합하여, 자율적 도덕과 타율적 도덕의 두가지 노선을 통합시켜서 '명일강(命日降), 성일생(性日生)'을 주장하여, 선천적인 선(善)과 후천적 도덕의 실천을 하나로 만들어 송명이학(宋明理學)의 대표적 대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중국문화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면서, 유교사상을 주류로 하고, 또 그 유교사상은 도덕가치를 핵심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각 시대의 사상적 개념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며 그 시대와 함께 발전해 나갔으며 2000 여년간 중국문화 중 가장 생동감있는 중국문화 정신의 대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왕소장의 일목요연한 유교사상의 해설과 함께 한 이번 강좌는 교직원들에게는 유교사상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인상을 전달해 주었으며, 학생들에게는 중화문화의 기본교양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총장의 19 세기 중기 이후, 서방문명이 동아시아에 유입된 이후의 근대화의 과정 및 중국, 한국, 일본을 막론하고 발생하였던 문화적 충격 및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에 대한 보충 강연이 있었으며 그 내용의 요지는, 청나라 말기의 '양무운동(洋務運動)'이 주장하였던 기본 사상인 '중체서용(中體西用)'은 바로 중국 전통의 사상, 문화, 제도를 그 근본으로 하여 서방의 선진화된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아이디어를 가리키고, 한국의 조선에서도 이와같은 사상인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사상이 존재하였으며, 한편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시대에는 '화혼한재(和魂漢才)' 그리고 '화혼양재(和魂洋才)'의 사상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으며, 일본국민이 서양의 문화를 배울것을 장려함과 동시에 전통문화를 고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의 공통적인 학문형성과 발전을 야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역사학부 석사 2학년생 스신(石信)은 현재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있는 AI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속에서, 미래시대에도 과연 공자학의 도덕사상이 유용할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왕소장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공자학이 양한(兩漢), 당(唐), 송(宋), 명(明), 청(淸)대를 거친 장기적인 검증을 통해, 공자학의 도덕사상이 도태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음을 거론하며 이를 통하여 도덕은 영구성(永恒性), 관통성(貫穿性) 및 연전성(延展性)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하였지만, 자본주의의 내면에는 도덕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의 AI 인공지능의 발전은 매우 엄청난 도구가 될것이나, 만일 이러한 도구가 도덕적인 양심의 결함이 있는 사람의 손에 쥐어진다면, 원자탄보다도 더

욱 무서운 존재가 될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 도덕적 양심을 갖춘 사람에 손에 쥐어진다면 , 이는 인류에게 큰 이로움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AI 에 관한 법률 및 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도덕적 사상을 필요로 하게 될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일본어학과 4 학년 주상잉(朱相瑩) 학생이 중국이 세계 각국에 설립하고 있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본 강좌는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하였으며, 열띤 토론 및 교류와 함께 학술적으로 수준높은 우수한 강좌였다.